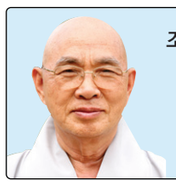


조계종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
"여성불자의 정진은
불교의 희망입니다."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월 25일) · 주간

제930호 2013년 3월 6일 수요일

애욕보다 큰 것은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은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금주의 법구 〈별역잡아함경〉

'문화융성'… 전통문화 육성·보존부터

박근혜 정부의 불교계 정책 과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문화융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드러나듯 박 대통령은 문화의 가치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며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 같이 문화를 국정과제의 키워드로 내세운 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박 대통령의 문화융성에 대한 의지는 인수위의 국정과제에서도 나타난다. 국정과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문화 재정 2% 달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은 역대 최고인 4조 1천억여 원. 지난해보다 12.2%가 늘어났지만. 정부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문화재청 예산인 5천 600억 원을 포함해도 1.3%정도다. 박 대통령은 집권 5년째인 2017년까지 문화 재정을 2%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있다.

문화재정 2% 확대 제시

문화재기금 5천억 원 약속

농지법 등 중첩 규제 법령

해소 관심… 부처 조율 필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유산 법률 제정 및 문화재보호기금 확충안을 과제로 내놨다. 권역별 국립수장고 건립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 승격안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유무형 불교문화재 보전을 넘어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비롯해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현재 2000억 원 규모인 문화재보호기금을 5000억 원으로 증액할 것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화재보호기금은 박 대통령이 2009년 대표 발의해 제정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 운용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대를 모으는 것은 불교 중첩 규제 법령 해소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통사찰 보존 육성과 더불어 불교계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를,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농지법 제 6조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사찰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감면도 약속했다.

하지만, 불교계와 정부 부처 간 시각차가 커 실제적인 법안 개정 조율까지는 적지 않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는 "'문화융성'은 한국불교 문화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이제는 영산재, 연등회 등 무형의 불교문화의 문화적 탐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칼럼 31면

3·1절 특별기고 – 일본 이치노헤 쇼고 스님

불교가 동아시아 긴장의 해법

한국의 3.1운동과 일본 불교

식민지 조선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무단정치(武斷政治)'에 반발해 일어난 것이 한국의 3.1운동이다.

조선총독부는 약 20,000여 명의 사상자를 낼 만큼 철저히 탄압했지만, 그와 반대로 한국의 민족독립운동은 벌판의 들불과 같이 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일본 불교계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지배자에게 동조하는 민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불교계가 실패한 최대의 원인은, 그 행동이 비불교적이었기 때문이다. 불교는 공존의 종교이며, 권력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당시 일본 불교계는 불교적으로 보면 실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3.1운동' 후 약 100년이 경과한 현재의 일본 불교계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있는 것인가? 답은 아니라고 본다.

필자는 작년 9월, 1992년에 일본 조동종이 내놓은 '참사문'을 새긴 석비를 군산시(群山市)에 소재한 조계종 동국사에 세웠다. 참사비의 내용은 식민지 지배나 전쟁에 일본 조동종이 가담한 것을 참회하며 사죄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진정한 반성'이라고 높게 평가했지만, 일본 조동종은 참사비 철거를 나에게 정식 공문서로 요구한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다케시마(竹島) 문제로 한일 관계가 긴장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참사비 건립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인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 조동종은 불교단체가 아니라 마치 일본 외무성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인은 항상 정치권력과 분리되어 독립하고 있어야만 한다.

불교인은 영토적 내셔널리즘(nationalism)에 절대로 농락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다케시마(竹島)=독도(獨島) 문제를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현행 국제법에서는 다케시마(竹島)=독도(獨島)는 일본 영토이지만,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 1785)〉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는 한국 영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면에서 계속

봄이 보인다…꽃잎 한 장도 용화세계 산문의 길목에 사천왕이 있다면 봄의 길목엔 꽃들이 있다. 추웠던 겨울이 그 자릴 지나지 못하고 따뜻한 봄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2월 25일 경남 양산 통도사. 용화전 앞마당의 목련 나뭇가지에 꽃망울이 부풀기 시작했다. 까마득한 세월을 기다리는 미륵부처님 앞에서야 한 계절 바뀌는 것이 별일도 아니겠지만 미혹한 중생의 눈에는 꽃잎 한 장도 용화세계다.

양산 통도사=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조계종 행정, 중앙서 교구로 재편"

총무원장 자승 스님, 본사주지회의서 의지 천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중앙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계종 행정체계를 교구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로 변화시켰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33대 집행부의 마지막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 및 중앙종회의장단, 본사주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합동워크숍에서 교구단위의 책임 행정으로 종단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중앙집중식 행정체계로는 종단의 현안과 미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고, 분담금의 규모는 물론 이에 의존한 종단운영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중앙은 관리의 효율성에 노력하고 교구본사는 중앙의 행정을 나누어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실질행정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양극화를 극복할 방안으로 마을 공동체를 꼽고 있다"며 "천주교가 마을 단위 성당 건립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선교와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들이 마을 공동체에 주목하고 있다"고 선례를 들었다.

행정 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사찰과 교구, 종단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교구단위 재정 집중과 책임적인 행정 집행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몇몇 교구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교육과 포교, 그리고 복지를 교구단위에서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구의 행정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사의 행정력과 실무력 향상을 위해 진력한다면 종단도 교구별 직영사찰 지정 권한 등, 종단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종도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할 준비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준비된 교구부터 실질적인 인사와 재정관련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중앙종무기관의 업무 체계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시간 동안 진행된 교구본사주지회에서는 △종무행정학교 운영 △교구별 승려복지회 운영 및 승보공양 운동 동참 △문화부 사업 현안 보고 및 협조 요청의 건 △신도품계법회 안내의 건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봉행의 건 등이 안건보고와 관련 토론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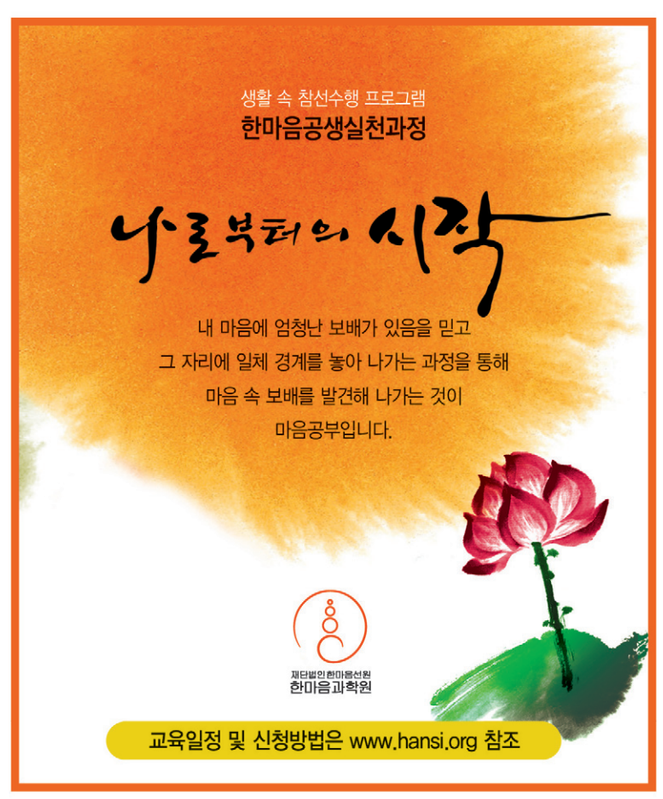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930호 INDEX

종합 2·3
행복바라미 거리모금 캠페인
실천승가회 20주년 세미나
부석사 불상 반환 반대
3.1절 불교기념행사 다채
종립학교 학생들 나눔 '눈길'

시방세계 5
월정사 동안거 해제

복지 7
합천 평화의 집 현황

화엄만다라 16·17
박준영 국악방송 사장

문화 – 봄철 사찰 문화 강좌 20